

고개의 조망특성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강영조* · 조승래** · 김희정*

*동아대학교 도시계획 · 조경학부 · **동아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 조경학과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rospect from the Mountain Pass - Focusing on Mountain Passes Located in Busan -

Kang, Young-Jo* · Cho, Seung-Rae** · Kim, Hee-Jung*

*Dept.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Dept.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prospect from the mountain pass by investigating relations between the type of mountain pass and object overlooked from the mountain pas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elected and surveyed 44 mountain passes located in Busan, except in Gangseo-gu region. According to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e mountain pass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anmok'(formed between mountain peaks), 'sanheori'(formed on the mountainside) and 'sanmaru'(formed at the tip of the mountain peak). Out of the total 44 mountain passes, 22 were 'sanheori' in type. In the same type, mountain passes mostly had a prospect providing the overlap of downtown and mountain areas. The researcher examined the sight distance and dip of object to be viewed from the mountain pass, determining relations between the object and the mountain pass. When overlooked from mountain passes in Busan, most objects are distributed between -3° and -1° in an angle of depression within the sight distance from 0.5km to 14km.

Mountain passes are valuable as a post that is very important in prospecting scenes. But they are now in crisis. They are being gradually disappeared because of development projects.

Finally, the researcher hopes that the study makes recognizing the value of the mountain pass and contributes to preserve the mountain pass as an important post of view point when its region is later developed.

Key Words :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gle of Depression, Post of View Point

[†] : 본 논문은 2001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연구기초자료)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Young-Jo Kang, Dept.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Busan 604-714, Korea, Tel.: +82-51-200-7576, E-mail: yjkang@dau.ac.k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개는 산등성이를 넘는 도로가 통과하는 곳을 말하며 영어로는 Pass라 하는데 그 어원은 Passable, 즉 통과할 수 있다는데서 비롯되었다(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1982). 산이 국토의 7할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고개는 친숙한 길이다. 그러나 최근에 국토를 종횡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터널과, 철도 등의 개발행위에 의하여 고갯마루에서 국토의 산하를 조망하는 경관체험은 서서히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개의 경관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겹재가 사천 이병연의 초청으로 처음 금강산에 들어갔을 때 그린 그림 「단발령망금강산(斷髮嶺望金剛山)」이다(그림 1 참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개라고 하는 장소의 경관 발생적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단발령으로 보이는 산 중턱에 선비 네댓 명과 길 안내를 맡은 승려 서너 명이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온 듯한 산길에 구불구불 그려져 있고 그 길 위에도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보기만 해도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골짜기를 감아 오르기를 몇 번이었던가. 산 길 끝에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아아, 이 고개만 넘으면 금강산인가보다.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험격거리며 뒤편을 차고 오른다. 드디어 고개 마루에 올라섰다. 그러자 시계가 탁, 하고 열렸다. 그 때 거짓말처럼 눈앞에 암봉들이 펼쳐지고 있다. 산 뿌리는 열은 안개에 휘감겨 있고, 그래서 일만 금강산 봉우리들은 마치 허공에 떠있는 듯하다.

사천 이병연도 겹재 정선의 「단발령망금강산」에 다음과 같은 제화시를 붙이고 있다.

드리운 길 구불구불 용이 오르는 듯/드높은 절정엔 두 그루 소나무가 표 난다/홀연히 만난 천지 밝은 세계라/봉래산 일만 봉을 처음 보겠네(최완수, 1999).

‘홀연히 만난 천지’라고 하는 부분은 고개라고 하는 장소가 경관이 발생하는 맥점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개는 경관 체험을 야기하는 중요한 장소다. 그러나 고개의 경관적 가치에 동의하면서도 지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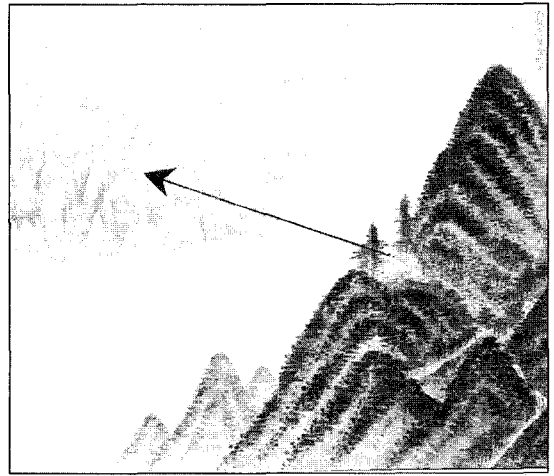


그림 1. 겹재 정선의 「단발령망금강산(斷髮嶺望金剛山)」

지 고개에서 보는 경관적 특성을 면밀하게 기술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 연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본 연구는 고개에서 보는 경관의 특성, 다시 말해서 조망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방법

1) 경관체험과 고개의 위상

경관이라는 현상은 대지의 시각상과 인간의 정신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현상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객관적인 공간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시각상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있는 공간의 시각상으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 속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현상이다(강영조, 2003). 이 말을 경관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음미하면, 공간의 시각상이라고 하는 계열과 그 속을 유영하는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계열이 우연히 만나는 한 점에서 경관이라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경관이라는 현상을 후기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사건과 같은 개념으로 여긴다면(이정우, 1999), 경관은 사건이 발생하는 특이점에서 생겨난다(그림 2 참조).

경관이 발생하는 특이점은 공간 속을 유영하는 인간의 정신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언덕을 오르다가 언덕 마루에 섰을 때 느닷없이 펼쳐지는 경관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체험되는 인상적인 경관체험이듯이 보편적인 특이점의 존재는 쉽게 양해할 수 있다.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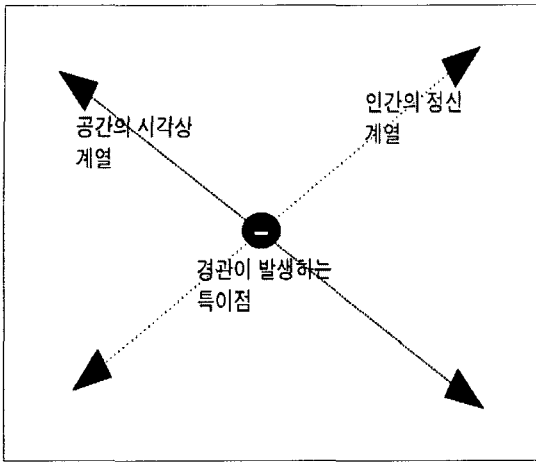


그림 2. 경관 발생의 특이점

장소를 바둑 용어를 빌어 경관의 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견재의 「단발령망금강산」이나 그 그림에 제화시를 붙인 이병연 역시 경관체험의 맥점으로 고개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고개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쓴 「천 개의 산마루」라고 할 때 그 산마루처럼 경관이 발생하기 쉬운 보편적인 특이점 중 하나다. 본 연구는 고개라고 하는 장소가 경관이 발생하기 쉬운 특이점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고개에서 보는 조망경관의 시각적 특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고개에 관련된 경관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다만, 고개에서의 시각 특성인 부각의 경관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樋口忠彦, 1975)가 있었다.

2) 연구의 방법

(1) 조사방법

부산광역시의 홈페이지(<http://www.busan.go.kr/busan-intro>)에는 총 52개소의 고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고개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부산시 강서구를 제외하면 총 44개소의 고개가 확인된다. 본 연구는 이 44개소의 고개를 대상으로 조망 특성을 밝힌 것이다. 조사 방법은 홈페이지에 소개된 고개를 지형도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후 현지에서 경관 특성을 파악하였다. 고개에서 조망되는 경관대상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시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핸드 레벨로 부각을 측정하였고, 그 부각과 표고에서 시거리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가 된 고개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2) 연구내용

고개의 조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고개의 명명 근거를 분석하여 고개 지명의 명명 수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개가 위치한 지형 부위를 근거로 하여 고개의 유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은, 고개에서 조망되는 경관의 특징에 따라 조망대상을 유형적으로 파악하였다. 또, 고개(시점)에서 보는 부각과 시거리 등 경관대상의 시각 특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개의 조망행위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고개에서의 온전한 경관체험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II. 결과 및 고찰

1. 고개의 지명 분석

고개 지명의 명명 근거를 특성별로 보면 지형·지질, 방향·위치, 크기·형상, 기후·전체, 사적·전설, 동·식물, 부락명, 광물, 숫자관계, 이름, 신앙관계, 기타와 같이 12가지로 분류된다(김양자, 1989). 그러나 연구 대상으로 삼은 고개 44개소의 부산광역시 자료를 이용하여 지명 유래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 소재 고개의 지명은 명명의 수법이 크게 4종류로 나타났다. 먼저, 엄광산과 구덕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명명된 구덕고개와 같이 “~에 있는 고개”가 있다. 이것은 저명한 장소 안에 있는 고개라는 의미로 명명의 수법은 “포함”이다. 그리고 고개라고 하는 경계부에 흔히 보이는 전설에 유래하는 것이 있다. 또 그 고개에서 눈에 띄는 경물, 예를 들면 감나무나 까치가 있다고 해서 감고개, 까치고개 또는 ‘새띠’라고 불리는 역새와 띠풀이 무성하다고 붙여진 셋디고개처럼 탁월한 경물에 유래한 명명이 있다. 마지막으로 말등처럼 생긴 고개라는 의미의 말등고개 등 고개의 지형 형상에 근거한 명명이 있다(표 1 참조).

이 결과로 보면, 부산에 소재한 고개명의 유래는 저명 장소와의 지리적 근접, 전설, 그리고 경관적 특징에 의하여 명명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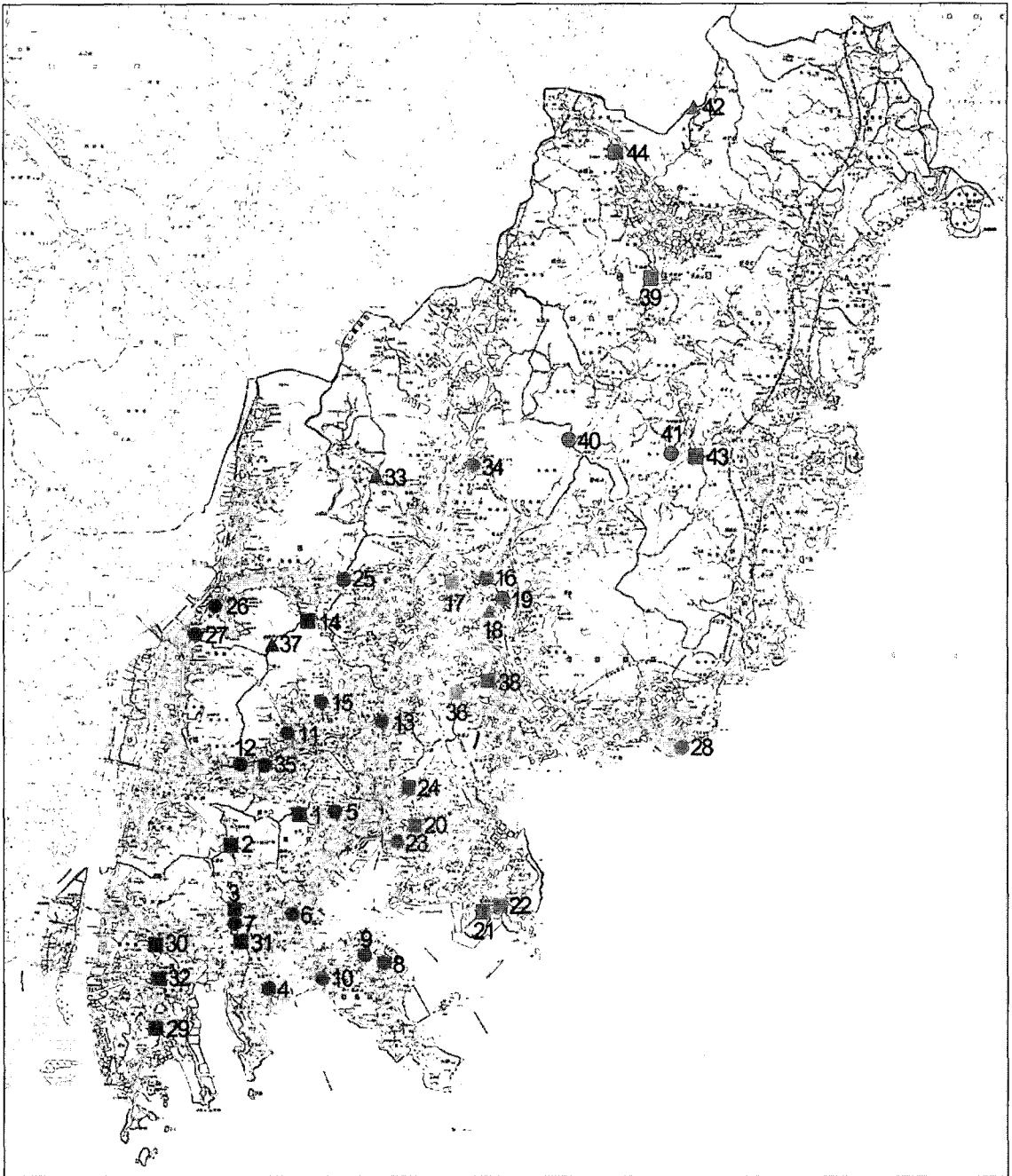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대상 고개의 위치

범례: ■: 산목형; ●: 산허리형; ▲: 산마루형

- 1: 감고개; 2: 구덕고개; 3: 대티고개; 4: 셋디고개; 5: 아리랑고개; 6: 영선고개; 7: 까치고개; 8: 북정어고개; 9: 아리랑고개; 10: 영선고개; 11: 개곶이고개; 12: 날가지고개; 13: 마비현고개; 14: 불태령; 15: 채기넘기고개; 16: 못웃고개; 17: 인생문고개; 18: 안락고개; 19: 한실고개; 20: 대연고개; 21: 망너머고개; 22: 뿔끼이고개; 23: 우암장고개; 24: 장고개; 25: 만덕고개; 26: 말등고개; 27: 야시고개; 28: 달맞이고개; 29: 다대고개; 30: 배고개; 31: 반달고개; 32: 장림고개; 33: 산성고개; 34: 야시고개; 35: 냉정고개; 36: 당고개; 37: 어부랑고개; 38: 뚝고개; 39: 곰내재; 40: 개좌고개; 41: 갈치재; 42: 널밭재; 43: 쌍다리재; 44: 진티재

표 1. 고개명 유래의 특성별 분류

요소	고개명	합계
저명한 장소 속에 포함	구덕고개, 대티고개, 영선고개, 영선고개(영도구), 개곶이고개, 날가지고개, 만덕고개, 다대고개, 장림고개, 산성고개, 냉정고개, 툫고개, 곰내재, 쌍다리재	14
전설 (전승)	아리랑고개, 복정어고개, 아리랑고개(영도구), 마비현고개, 인생문고개, 안락고개, 우암장고개, 야시고개, 야시고개(금정구), 당고개, 어부랑고개, 개좌고개	12
탁월한 경물	감고개, 까치고개, 망너머고개, 달맞이고개, 널밭재, 셋디고개,	6
지형, 지모	대연고개, 뽕끼이고개, 말등고개, 반달고개, 갈치재, 장고개,	6
미상	불태령, 제기넘기고개, 못웃고개, 한실고개, 배고개, 진타재	6

2. 고개의 지형 부위로 본 유형적 특성

고개가 위치한 지형 형태를 지형도와 현지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산목형, 산허리형, 산마루형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고 지형 부위의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1) 산목형

목은 지형 형상에 따라 크게는 산목형과 물목형으로 분류된다(강영조, 1993). 본 연구에서 수집한 고개 중 그 지형 부위가 주위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서 마치 짐승이나 사물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긴 곳을 산목형이라고 하였다.

산목형 고개는 산이 두 마을 또는 도시를 분단하는 경계가 된 곳에서 주로 보이는 것으로 두 지역을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경계부위에 있다. 이 고개에서 체험되는 조망행동은 산등성이에 의하여 폐쇄되었던 시계가 산목에 올라서는 순간 일순에 열리면서 멀리 원망하게 된다. 이 때 시선은 주로 진행방향의 전·후로 향하게 된다. 이 산목형 고개에 해당하는 것이 조사대상지 44개소 중 18개소로 확인되었다. 그림 4의 감고개를 보면 감고개는 동구 수정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수정산과 엄광산 사이에 위치하여 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산허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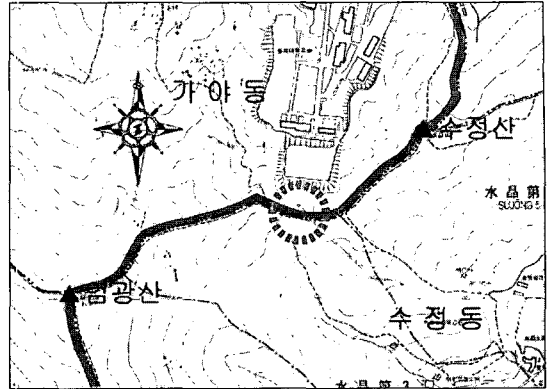


그림 4. 산목형(감고개)



그림 5. 산허리형(아리랑고개)

고개가 산허리에 위치한 형태로 검재 정선의 「단발령 망금강산(斷髮嶺望金剛山)」의 단발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선은 진행방향의 좌·우 중 한 방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산허리형 고개는 22개소로 확인되었다. 그림 5의 영도구 소재의 아리랑고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형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삼동과 봉래동을 이어주는 산허리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산마루형

고개가 산봉우리에 위치한 것이다. 산마루에 난 고개길은 조사대상지 가운데 4개소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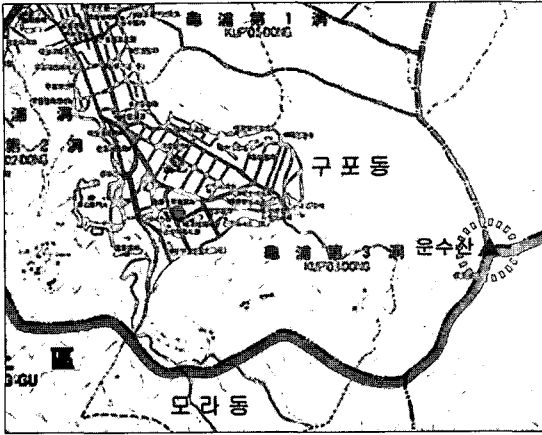


그림 6. 산마루형(어부랑고개)

그 수가 현저히 적었다. 고개에서의 시선은 사방으로 거침없이 둘러보게 된다. 그림 6의 어부랑고개는 산마루형의 대표 예로써 백양산 산등성이의 운수산 정상에 있는 고개로 모라동에서 구포동으로 넘나드는 고개이다.

3. 고개에서 조망되는 경관 유형

고개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고개에서 체험하는 조망 대상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경관을 구분하였다.

고개에서 체험되는 경관이 주로 산봉우리나 산자락인 경우를 산자락형으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바다와 섬 그리고 수평선을 조망할 수 있는 고개는 해산(海山)형, 산이 시가지를 감싸듯이 펼쳐지는 도시경관이 조망되는 고개는 배산도시형, 시가지와 산, 바다가 한꺼번에 조망되는 곳을 산수도시형이라 명명하였다.

조사대상지의 고개 중 조망행동이 가능한 고개는 전체 44개소 중 29개소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여기에서 제외된 15개소의 고개는 고개 주위가 시가지화에 의하여 시계가 차단되거나 폐쇄되어 있는 경우였다.

고개에서 체험되는 경관 유형은 배산도시형이 총 15개소였다. 상세하게는 산목형에서 3개소, 산허리형에서 10개소, 산마루형 2개소로 전체 29개소의 고개에서 15개소에 해당되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고개에서 산수와 도시가 한 눈에 보이는 산수도시형의 경관은 산목형에서 3개소, 산허리형에서 3개소에서 관찰되어 총 6개소였다. 마지막으로 시가지를 제외한 산과 바

표 2. 고개의 조망대상

번호	고개명	조망	조망대상			
			산	시가지	바다	섬
1	감고개	○			○	
2	구덕고개	○	○			
3	대티고개	◎	○	○	○	
4	셋디고개	△				
5	아리랑고개	△				
6	영선고개	○	○	○		
7	까치고개	△				
8	복징어고개	◎	○	○	○	○
9	아리랑고개	○			○	○
10	영선고개	△				
11	개논이고개	○	○	○		
12	날가지고개	△				
13	마비현고개	○	○	○		
14	볼태령	△				
15	제기넘기고개	○	○			
16	못웃고개	○	○	○		
17	인생문고개	○	○	○		
18	안락고개	○	○	○		
19	한실고개	○	○	○		
20	대연고개	○	○			
21	망너머고개	○			○	○
22	빨깨이고개	○			○	○
23	우암장고개	○	○	○	○	○
24	장고개	○	○	○		
25	만덕고개	○	○	○		
26	말등고개	○	○	○		
27	야시고개	○	○	○		
28	달맞이고개	◎	○	○	○	○
29	다대고개	△				
30	배고개	◎	○	○	○	○
31	반달고개	○		○	○	
32	장림고개	△				
33	산성고개	△				
34	야시고개	○	○	○		
35	냉정고개	△				
36	당고개	○	○	○		
37	어부랑고개	△				
38	툃고개	○	○	○		
39	곰내재	△	○			
40	개좌고개	○	○			
41	갈치재	△				
42	널밭재	○	○	○		
43	쌍다리재	△				
44	진티재	△				

범례: △: 불량; ○: 보통; ◎: 양호

다가 독립적으로 조망되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었다(표 3 참조).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다와 산지가 대표적인 경관요소인 부산이라는 시가지의 특성상, 고개에서 보이는 경관 유형은 산과 바다와 도시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산수도시형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해안에서 내륙으로 확장하면서 고개에서 보는 경관 대상이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

4. 고개의 시각특성

고개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고, 시거리, 부각을 측정하였다. 부각이 고개에서의 경관 특성을 설명하는 주된 요소라고 여겨, 부각 측정이 불가능한 고개 18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26개소의 고개에서 본 시각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4 참조).

1) 고개의 표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개는 최저 20m에서 최고 390m 사이에 분포하고 있지만, 주로 50~200m의 범위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고개가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표고가 801m의 금정산이 최고인 점과 고개가 교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그 위치가 산마루보다는 산허리나 산목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부산의 고개가 강원도의 대관령이나 한계령, 구룡령처럼 심산의 고개와는 달리 비교적 낮은 표고에 위치하는 점은 택지 개발과 도로 개설로 인하여 고개의 지형적 특성이 쉽게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이번 조사에서 경사면으로 고층 주택이 건설되어 있는 부산시의 도시 특성이 고개에서 보는 개방적인 경관체험을 상실한 것과 맞바꾼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고개에서의 경관 체험 특유의, 시계가 열린 장쾌한 파노라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고개의 경관보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고개에서 보는 경관에 대한 부각

고개와 같이 시점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경

표 3. 고개의 조망유형과 조망대상

유형	조망 대상	블록 다이어그램	지형개요	해당 고개
산목형	산지락형		고개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위치하며 조망 대상은 주로 산정이나 산지락에 해당된다.	2, 20
	해산형		고개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위치하며 조망 대상은 바다, 섬 등이 해당된다.	1, 21, 22
	배산 도시형		고개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위치하며 산이 시가지의 배경으로 조망된다.	17, 24, 38
	산수 도시형		고개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위치하며 산, 시가지, 바다, 섬 등이 조망대상이다.	3, 30, 31
산허리형	산지락형		고개가 산허리에 위치하며 조망 대상은 주로 산정이나 산지락에 해당된다.	15, 40
	해산형		고개가 산허리에 위치하며 조망 대상은 바다, 섬 등이 해당된다.	9
	배산 도시형		고개가 산허리에 위치하며 산이 시가지의 배경으로 주로 조망된다.	6, 11, 13, 16, 19, 25, 26, 27, 34, 36
	산수 도시형		고개가 산허리에 위치하며 산, 시가지, 바다, 섬 등이 조망 대상이다.	8, 23, 28
산마루형	배산 도시형		봉우리 정상에 고개가 위치하며 산, 시가지 조망이 가능하다.	18, 42

표 4. 고개의 시각특성

번호	고개명	유형	부각(°)	거리(km)	표고(m)
1	감고개	산 목형	-5~-1	2.9~14.0	250
3	대티고개	산 목형	-2~-1	3.1~ 6.3	110
6	영선고개	산허리형	-3~-1	0.9~ 3.0	52
8	복징어고개	산허리형	-5~-1	0.8~ 4.0	70
9	아리랑고개	산허리형	-2~-1	2.8~ 5.7	100
11	개곶이고개	산허리형	-5~-3	0.9~ 1.5	80
13	마비현고개	산허리형	-2~-1	1.4~ 2.8	50
16	못웃고개	산허리형	-2~-1	0.8~ 1.7	30
17	인생문고개	산 목형	-2~-1	1.4~ 2.9	50
18	안락고개	산마루형	-4~-1	0.7~ 2.0	35
19	한실고개	산허리형	-5~-1	0.6~ 2.9	50
21	망너머고개	산 목형	-2~-1	2.8~ 5.6	97
22	빨개이고개	산 목형	-4~-1	1.6~ 6.3	110
23	우암장고개	산허리형	-2~-1	0.8~ 1.6	28
24	장고개	산 목형	-3~-1	1.4~ 4.3	75
25	만덕고개	산허리형	-7~-1	1.5~10.0	180
26	말등고개	산허리형	-4~-1	0.3~ 1.1	20
27	야시고개	산허리형	-3~-1	0.4~ 1.1	20
28	달맞이고개	산허리형	-4~-2	1.6~ 3.2	110
30	배고개	산 목형	-3~-1	1.1~ 3.4	60
31	반달고개	산 목형	-2~-1	4.3~ 8.6	150
34	야시고개	산허리형	-2~-1	2.9~ 5.7	100
36	당고개	산허리형	-2~-1	7.3~14.6	254
38	툃고개	산 목형	-2~-1	0.6~ 1.1	20
40	개좌고개	산허리형	-2~-1	7.2~14.0	250
42	널밭재	산마루형	-7~-3	3.2~ 7.4	390

관대상에 대한 부각이 경관의 인상을 결정 지운다(篠原修, 1982). 篠原修(1982)에 의하면 부각 $-8^{\circ} \sim -10^{\circ}$ 가 시측에 해당하며 거기에 주경관이 있을 때 인상적인 경관체험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각 $-2^{\circ} \sim -3^{\circ}$ 를 부감의 상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내려다보다'라고 하는 행동의 한계라고 한다. 고개에서 조망되는 부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경관 대상이 -7° 부근에 있는 만덕고개와 널밭재가 있다. 이는 篠原修(1982)가 제안한 부각의 시측에 비교적 근접하는 곳에 경관대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 외 대다수 고개에서 조망되는 부각은 주로 $-5^{\circ} \sim -1^{\circ}$ 사이에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고개에

서 조망되는 부각이 $-3^{\circ} \sim -1^{\circ}$ 사이에 분포하는 곳이 16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그림 7 참조). 이는 대부분의 고개에서는 아득히 내려다보는 부감경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수평경을 체험하고 있다는 의미다. 적어도 만덕고개, 널밭재와 같이 최적의 부감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고개에서는 멀리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관보전이 필요하다.

3) 시거리

표고와 부각을 이용하여 시거리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개에서 조망되는 경관대상은 시거리가 가장 가까이는 0.3km에서 멀리는 14km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망역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망대상이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로 0.3~14km가 예측되었지만, 주로 조망 대상이 되는 곳은 시점과 가까운 곳이었다.

경관에 있어서 시거리는 인간을 지표로 한 경우와 경관, 그중에서도 수목을 지표로 하여 그 의미를 설정하고 있다. 인간의 경우 1.2km가 경관 속에 사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한계 거리라고 본다(樋口忠彦, 1975; 篠原修, 1982). 다시 말해서 의인적 가상행동(강영조, 2003)이 가능한 한계 거리인 셈이다.

부산의 고개는 26개소 중 11개소가 1.2km 안을 조망 시거리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의 표정을 알 수 있는 거리를 3km로 설정하고 있는 데(篠原修, 1982), 본 연구에서는 이 거리역 내에 조망 시거리를 가지고 있는 고개가 21개소이었다. 다시 말해서 부산광역시 고개에서는 경관의 표정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조망 대상이 분포하고 있다. 이 결과로 고개에서 보는 경관이 아득하고 망망한 원경이 아니라 표정을 알 수 있는 생생하고 친근한 경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5. 고개의 조망행위 저해요소

조사 대상지 고개 중 현재의 용도를 살펴보면 감고개, 불태령, 제기넘기고개, 어부랑고개 만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0개의 고개는 차도 등 교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고개에서의 조망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크게 건물, 수목, 인도교, 옹벽, 고가교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전체 44개소의 고개 중에서 25개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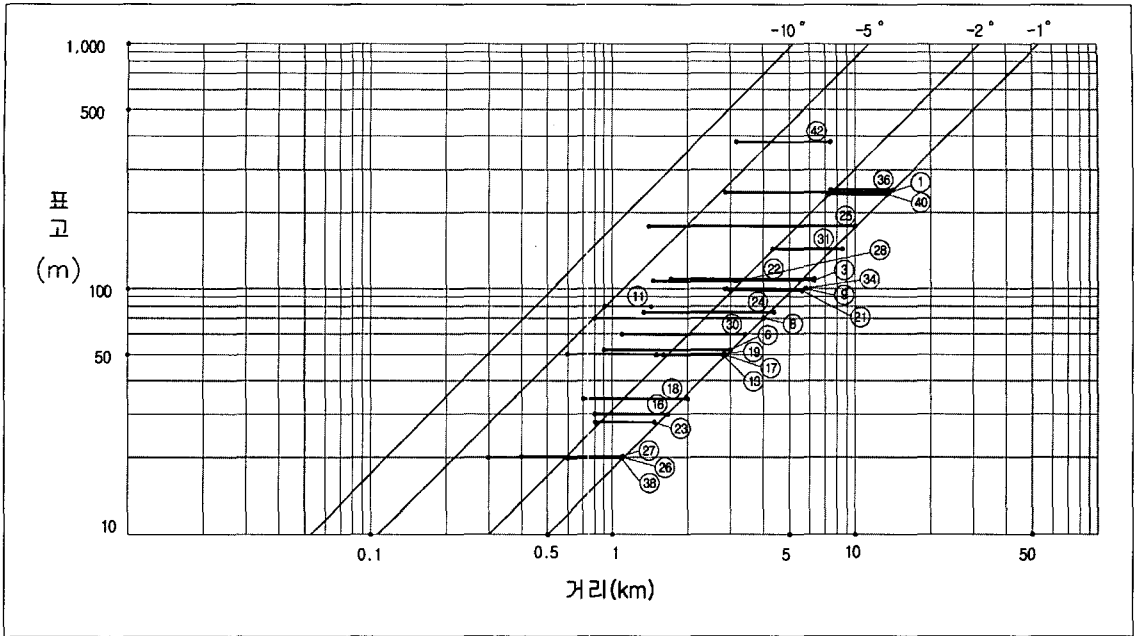


그림 7. 고개에서 보는 경관에 대한 부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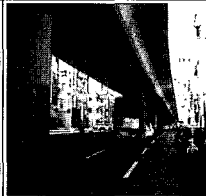
저해 요인	건물	수목	인도교	옹벽	고가도로
현황 사진					
	9. 아리랑고개	25. 만덕고개	16. 못웃고개	40. 개좌고개	12. 날가지고개

그림 8. 고개의 조망행위 저해 유형

건물에 의하여 조망이 방해받고 있었다. 그 다음이 수목의 나뭇가지 13개소, 차도를 가로지르는 인도교 5개소, 옹벽 3개소, 고가도로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와 같이 고개에서의 조망 저해 요소의 출현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제정에 따라서 개발 가능한 용지가 제한되고 1980년대부터의 주택 부족에 의한 사면이나 산지에서의 고층·고밀아파트의 개발로 이어진 부산시의 도시발달의 결과(金殊男, 2003)로 추측할 수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부산에 있는 고개 44개를 대상으로 고개의 조망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 소재 고개의 지명은 그 명명의 수법이 크게 저명한 장소 속에 포함, 전설(전승), 탁월한 경물, 지형 및 지모 등 4종류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개는 그것이 위치한 지형형태에 따라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위치하는 산목형, 고개가 산허리에 위치하는 산허리형, 고개가 산봉우리에 위치하는 산마루형으로 총 3종류의 고개로 분류되었다. 이 세 유형은 고개의 지형적 특징에 의하여 분류한 것으로 고개의 지형 특성의 분류 기준으로 삼아

표 5. 고개의 조망행위 저해요소

번호	고개명	현재용도	저해요소				
			건물	수목	인도교	고가도로	옹벽
1	감고개	등산로		○			
2	구덕고개	차도					
3	대티고개	차도	○				
4	셋디고개	차도	○				
5	아리랑고개	차도	○				
6	영선고개	차도					
7	까치고개	차도	○				
8	복징어고개	차도	○				
9	아리랑고개	차도	○				
10	영선고개	차도	○				
11	개곶이고개	차도				○	
12	날가지고개	차도				○	
13	마비현고개	차도	○		○		
14	볼대령	등산로		○			
15	제기넘기고개	등산로		○			
16	못웃고개	차도	○		○		
17	인생문고개	차도	○				
18	안락고개	차도	○				
19	한실고개	차도	○				○
20	대연고개	차도	○		○		
21	망너머고개	차도		○			
22	빨끼이고개	차도	○				
23	우암장고개	차도	○				
24	장고개	차도	○				
25	반덕고개	차도		○			
26	말등고개	차도	○				
27	야시고개	차도	○				
28	달맞이고개	차도	○	○			
29	다대고개	차도	○		○		
30	배고개	차도					
31	반달고개	차도	○		○		○
32	장림고개	차도					
33	산성고개	차도		○			
34	야시고개	차도	○	○			
35	냉정고개	차도	○				
36	당고개	차도	○				
37	어부랑고개	등산로		○			
38	룻고개	차도	○				
39	곰내재	차도		○			
40	개좌고개	차도					○
41	갈치재	차도		○			
42	널발재	차도		○			
43	쌍다리재	차도					
44	진티재	차도		○			

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의 고개는 산허리형이 22 개소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셋째, 고개에서 체험하는 조망대상은 산자락형, 해산형, 배산도시형, 산수도시형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지 중 조망행동이 가능한 고개 29개소 중 배산도시형이 산목형에서 3개소, 산허리형에서 10개소, 산마루형에서 2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지 고개에서 체험되는 경관대상의 시각특성은 다음과 같다. 고개가 위치하는 지점의 표고는 50~200m의 범위에 있었다. 이는 고개가 교통로라는 점, 그리고 부산의 경우, 교통로로서 고개는 표고 200m가 한계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고개에서 조망되는 경관대상은 주로 부각 $-3^{\circ} \sim -1^{\circ}$ 의 범위에 있었다. 이 범위는 수평선으로 볼 때처럼 지면과 평행한 시선이다. 부각 $-3^{\circ} \sim -1^{\circ}$ 은 부감경의 상한이다. 고개에서 보는 경관대상이 이 범위의 부각역에 분포하는 것은 도로개설로 등으로 인하여 고개의 고유지형을 상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광역시의 고개에서 보는 경관과의 시거리는 경관의 표정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조망대상이 분포하고 있다. 이 결과는 고개에서 보는 경관이 아득하고 망망한 원경이 아니라 표정을 알 수 있는 생생하고 친근한 경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개에서의 조망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주변의 건축행위, 수목, 고가도로, 옹벽, 인도교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개의 일반적인 조망특성은 200m 정도 높이의 산허리에 난 고갯마루에서 1.2km 정도 거리의 산을 등진 도시를 주된 조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축행위가 조망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였다.

고개는 그 입지적 특성상 부감경 조망이 유리한 시점장이다. 그러나 부산의 고개에 한정해서 고찰해 보면 고개가 개발행위에 의하여 고유지형을 상실하고 지명만 남아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 최적의 부감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고개는 향후 지형설계 등 경관계획에서는 그곳에서의 조망행동이 온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개에서의 조망 저해 요인을 제도적, 도시개발 패턴 등 입체적으로 밝히는 것과

더불어 연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개의 선형 등 현황과 조망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경관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굴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강영조(1993) 지명 명명공간의 형태와 상모적지각의 지형보전적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1(2): 68-79.
2. 강영조(2003) 풍경에 다가서기. 서울: 효형출판.
3. 金殊男(2003) 斜面住居地の評価及び計畫のための基礎的研究. 福井大學博士學位論文.
4. 김양자(1989) 우리나라의 고개에 관한 지리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1982)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6. 이정우(1999) 시뮬라크르의 시대. 서울: 거름.
7. 최완수(1999) 겸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 서울: 대원사.
8. 篠原修(1982) 土木景觀の計畫、東京: 技報堂.
9. 樋口忠彦(1975) 景觀の構造、東京: 技報堂.
10. <http://www.busan.go.kr/busan-intro>

원 고 접 수: 2005년 8월 16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5년 10월 12일
 3 인 의 명 심 사 필